

# 사물인터넷 주도권을 잡아라

## IoT, 차세대 정보통신분야 성장 동력

SKT,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앱세서리 지원 LG유플러스, 가전·차량 제어 서비스 공개 KT, 사물지능통신·근거리무선통신 등 선포 삼성, 스마트홈 플랫폼 등 IoT에 역량 집중

‘사물인터넷(IoT)’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사물인터넷 운영체제(OS)를 선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플랫폼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은 물론 냉장고와 같은 가전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밖에서 집에 있는 조명과 가전기기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집에선 밖에 있는 자동차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통신속도 개선 및 IPv6 상용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주요 격전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내년 사물인터넷 대수는 올해보다 30% 증가한 49억대, 2020년에는 25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표준 기반 플랫폼 공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관련 플랫폼을 잇달아 공개하며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표준 기반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모비우스’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업 대상(B2B)의 단말 뿐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앱세서리 등 소비자 대상(B2C)의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를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향후 관련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플랫폼에 등록된 많은 기기들 중 필요한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검색된 기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내려받을 수 있는 앱장터 기능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내년 중 실제 상용망에 적용한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최근 글로벌 표준 기반 플랫폼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앰프(차량과 가정)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에서 가정내의 전등, TV, 가전 등 상태를 확인·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도어락 등 차량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KT도 지난 달 관련 전시회에서 사물지능통신(M2M)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콘(Beacon)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 ●삼성, IoT에 역량 집중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가 차세대 ICT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물인터넷 전시회에 마련된 KT(위)와 지난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크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회의’. 사진제공 | KT·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열린 개발자 회의에선 가전 제품과 조명을 비롯한 생활 제품을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TV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 솔루션 ‘삼성 스마트홈 플랫폼’을 공개했다.

특히 다른 회사 제품으로 삼성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가 삼성 생활가전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8월 IoT플

랫폼 개발사 스마트싱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될 구글과 애플의 경우 이미 6월에 관련 OS와 전략을 공개하면서 치열한 시장 다툼을 예고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웨어·오토·TV’ 등 다양한 기기의 운영체제(OS)를 공개했고, 애플도 스마트가전 시장을 겨냥한 홈킷트를 갖춘 ‘iOS8’과 스마트가 OS ‘카플레이’ 등을 선보였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 매일 밤 2~3번 소변 마렵다면 전립선비대증 의심

### ■중년남성 올리는 전립선비대증

방광 과민해지는 추운 겨울 증상 더 심해져 채식 효과적...카페인·알코올 등은 줄여야

대기업 임원인 박영수(54·가명)씨는 최근 들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소변을 보기 위해 매일 밤 2~3번씩 잠에서 깬 때문이다. 숙면을 취할 수 없다보니 피로가 쌓였고, 업무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박씨에게 찾아온 ‘말 못 할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낮에도 수시로 ‘요’의 ‘가’ 느껴졌는데, 화장실에 갔다 와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소변줄기도 예전에 비해 가늘어지고 힘이 없었다. 박씨는 고심 끝에 비뇨기과를 찾았고, ‘전립선(선)비대증’ 진단을 받았다.

전립선은 여성의 자궁과 비교될 만큼 남성에게 중요한 생식기이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발랄한 부드러운 조직으로 정액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 가운데 구멍으로 요도가 통과하는데,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증상을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한다.

### ●중년 남성 올리는 전립선비대증 겨울에 더 심해져

전립선비대증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남성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못해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도 전립선 크기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40대 이후 남성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중년남성에게 흔한 질환이다.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증상이 잘 나타난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면 땀 배출이 적고 소변의 양이 많아져 방광이 과민해지고 자주 수축을 하게 되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립선비대증의 주요 증상은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빈뇨’, 소변이 갑작스럽게 마려운 ‘절박뇨’, 소변이 쉽게 나오지 못 하는 ‘지연뇨’, 소변이 뚝뚝 끊어지면서 나오는 ‘단절뇨’, 소변을 배출해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는 ‘잔뇨감’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깊은 수면을 방해한다. 또 전립선 비대증을 앓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된다. 또 정액이 요도를 거쳐 배출되기 때문에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발기부전 등 성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육류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 개선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분 섭취를 하루 1500ml 이하로 줄이고 카페인, 탄산음료,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면 방광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립선비대증 초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 90% 정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다면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치료하기도 한다.



중년남성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전립선비대증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스포츠동아 DB

김재학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

## 면역력이 강해내 몸이 건강하다 | 이지스한의원 장혁 원장

### 면역저하로 인한 베체트병, 한방치료로 호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 저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면역력은 신체의 건강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가면역질환인 베체트병이 대표적이다. 베체트병은 1973년 터키의 의사인 베체트씨가 이름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질환이다. 주로 입의 궤양, 음부 궤양, 안구 질환, 피부 질환 등 많은 증상들이 신체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베체트 질환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는 초래하지 않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질환이 포도막염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환자의 약 20%가 시력을 잃을 수 있으며 병이 소화계나 중추신경계, 심혈관계로 침범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빨리 증상을 알아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 ●베체트병, AIR프로그램으로 치료하는 것이 현명

베체트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질환의 근원은 면역력 저하이기 때문에 체내의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이지스한의원의 AIR프로그램과 같은 치료법을 이용해야 한다.

AIR프로그램은 화수염양단, 진수고, 면역약약, 면역약침요법, 명상생식요법, 양음요법처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초기, 중기, 후기에 걸쳐 총 12개월의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환자 스스로 관리만으로도 질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자가면역질환인 베체트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의 정상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치료를 병행하는 이지스한의원의 AIR프로그램 치료가 효과적이다. AIR프로그램으로 질환을 치료한 후에는 일상생활속에서의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영양소가 풍부고 든 음식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질환 예방과 관리에 중요하다.

이지스한의원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베체트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질환을 개선하기를 권유한다.

### 이지스한의원 장혁 원장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의료봉사단체 청구학회 의료부장  
대한한방류마티스학회 정회원  
한방자가면역질환연구회 정회원  
대한중경의학회 정회원  
대한한방내과학회 정회원  
대한한방통증학회 정회원  
前 통일한의원 원장



## 크리스마스 선물 온라인 구매 어때?

옥션·G마켓·쿠팡 등 할인 기획전 풍성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어떤 게 좋을까.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을 고민하게 되는 요즘,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이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기획전 마련해 관심을 끈다.

옥션은 21일까지 유아동 장난감부터 트리, 주얼리, 공예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상품을 최대 72% 할인하는 ‘슈퍼산타’ 기획전을 연다. ‘노래하는 엘사 인형’ 등 장난감을 물론 여성을 위한 패션 및 화장품, 남성을 위한 향수와 정갑 등을 준비했다. 데이트나 가족모임을 위한 e쿠폰 식사권도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과 디너쇼 등도 판매한다.

G마켓도 21일까지 ‘2014 크리스마스 윈, 투, 트리&DECO’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트리 세트부터 장신구와 홈데코 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상품을 구매하면 이용가능한 3000원(2만 원 이상 구매시) 할인 쿠폰을 추천을 통해 매일 500명에게 제공하며,



선착순 5000명에게는 2000원(3만 원 이상 구매시) 할인 쿠폰을 준다.

소셜커머스 쿠팡은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19일까지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트리, 캔들 등 아기자기한 장식소품과 아동용 완구와 교구, 겨울철 의류, 잡화 등 크리스마스 시즌 인기선물을 판매한다.

김명근 기자

## 다음카카오 이석우대표 경찰 소환

경찰 “음란물 유포 사전에 막지 못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사진) 대표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받았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때 ‘카카오그림’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감청 영장불응 등에 따른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관련 수사가 7월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근거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회사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명근 기자

## 제네시스 ‘북미 올해의 차’ 후보에

머스탱·골프 등과 승용부문 최종 경쟁

현대차 제네시스(사진)가 ‘북미 올해의 차 2015’에서 포드 머스탱, 폭스바겐 골프와 함께 승용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현대차가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2009년 제네시스, 2011년 쏘나타, 2012년 아반떼에 이어 4번째이며, 이 중 2009년 제네시스, 2012년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최종적으로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한 바 있다.

제네시스는 올해 11월까지 미국시장에서 1만 6808대가 판매됐고, 올해에는 출시 이후 최초로 글로벌 판매 7만대 돌파가 유력시 된다. 또 최근에는 미국 최고 권위의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사



인 ALG(Auto motive Lease Guide)가 발표한 ‘2015 잔존가치상’에서

프리미엄 대형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경제성, 상품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미 올해의 차는 2016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종 수상 차종을 발표한다.

이번에 제네시스가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 현대차는 단독 브랜드만으로 3회 수상을 하게 된다. 일본의 모든 메이커가 지금까지 기록한 3회 수상에 맞서는 기록이다.

원성철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sms23